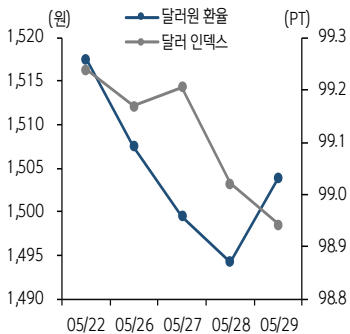


# 간 보고 있는 트럼프, 발톱 세운 한은

FX Talk & Insight : 금주 1,485~1,515원 전망

워낙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 신뢰도는 떨어지나 트럼프도 휴전 연장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하지만 통화긴축 우려와 중간선거 불확실성은 중동 전쟁 이후에도 남겨진 금융시장의 숙제가 될 듯. 역설적으로 미국-이란 합의에 다가설수록 주요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행보가 드러날 것이며, 금리인상으로 방향타를 설정한 한은 금통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 따라서 미국의 고용-물가 지표와 더불어 경제성장 상향조정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실적도 주시해볼 필요

## 외환시장



상대가 말 바꾸기 귀재인 트럼프인지라 새삼스럽지 않지만, 60일 휴전 연장 등을 앞두고 이란과의 협상이 다소 지지부진해지는 듯하다. 핵 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이란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들어 주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 역시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소모전으로 보이고, 국제유가도 엇갈리는 뉴스에 등락을 반복할 뿐 조금은 둔감해진 듯하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진 만큼 재정적인 체력 소모도 커지고, 중앙은행의 인내심도 점차 고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중동전쟁의 긴장감이 수그러진다고 해도 금융시장은 미국 중간선거와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킁킁대며 풀어야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시의 수혜로 경기후퇴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유가 충격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는 나라일 수록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먼저 만지작거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 신현송 신임 총재를 맞이한 한은의 스탠스 변화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전만 해도 금리인하 여부를 타진했던 한은은 이후 조금씩 보수적인 뉘앙스를 펼쳤고, 이번 5월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인상 여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표면상 기준 금리는 동결했지만, 올해 GDP(2.0% → 2.6%)와 CPI(2.2% → 2.7%)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데다 6개월 후 조건부 적정 금리가 3.00%로 크게 높아졌다. 수정 경제전망과 점도표의 조합을 단순히 놓고 보아도 하반기 이후 분기당 25bp씩 4번 정도의 금리인상이 새로운 컨센서스가 될 것 같다.

물론 5월 들어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이 앞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이들은 원자재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로존, 일본 등 핵심 선진국에서도 물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금리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한편, 연준 인사들의 기류 역시 매파적으로 선회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한은도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에 자연스럽게 편승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중동 전쟁이 더 큰 위협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선진국인 캐나다, 호주, 유로존 등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금리인상 시점을 조율할 것이고, 연준보다 한발 빠른 3/4분기중 인상을 한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아직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다, 연준 역시 금리인상을 외면할 수 없어 한은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원화 환율의 주도적인 하락을 이끌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중동 전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트럼프의 금리인하 주문이 연준에 잘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역설적으로 물가상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명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 물가와 함께 고용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도 고통을 부여하지만 자체 원유 생산으로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것이고, 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계속되고 있어 고용이 우려만큼 부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향조정되는 한국 GDP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도 주시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시 도입률이 50%를 넘으며 막대한 투자 경쟁과 이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금융시장은 중동 협상의 진전을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이 가시권으로 다가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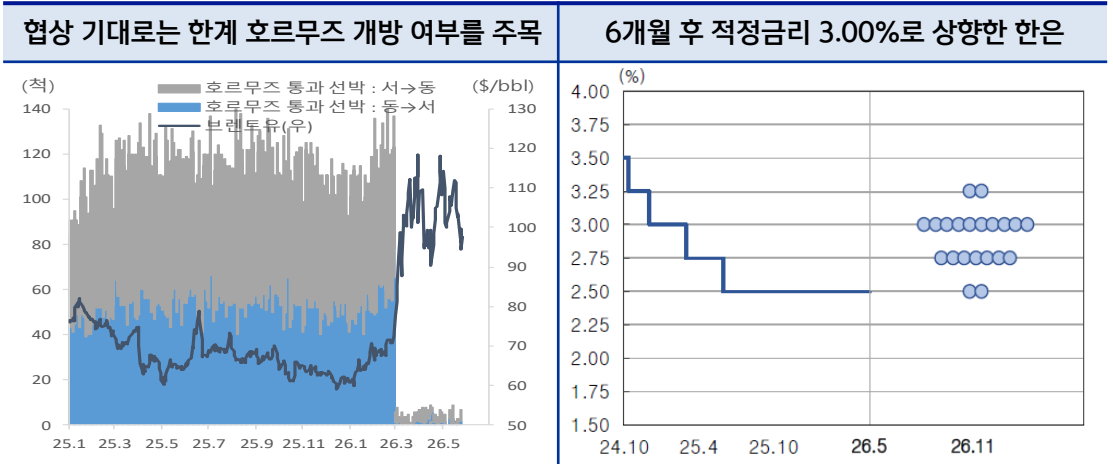
# Weekly FX Economist View

## 간 보고 있는 트럼프, 발톱 세운 한은

###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미국-이란 협상 진척 뉴스에도 양국 간 무력 충돌 발생하는 등 중동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 다만 양국 모두 휴전 연장 혹은 종전을 바라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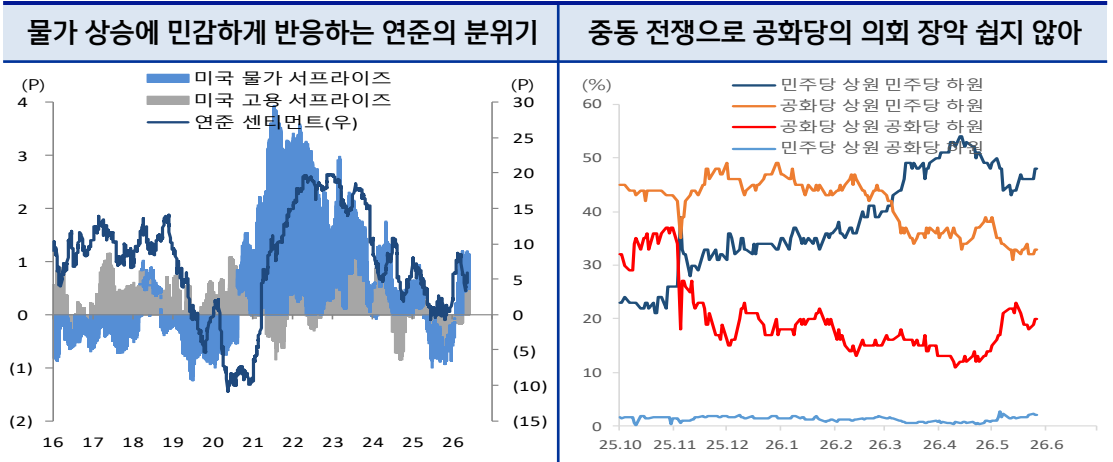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했으나 전반적인 색채는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화. 성장 및 물가 전망 상향조정 한 한편 점도표도 올라가며 사전 예고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국제유가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시차 두고 물가 지표는 올라갈 전망.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물가 경계와 더불어 매파적으로 분위기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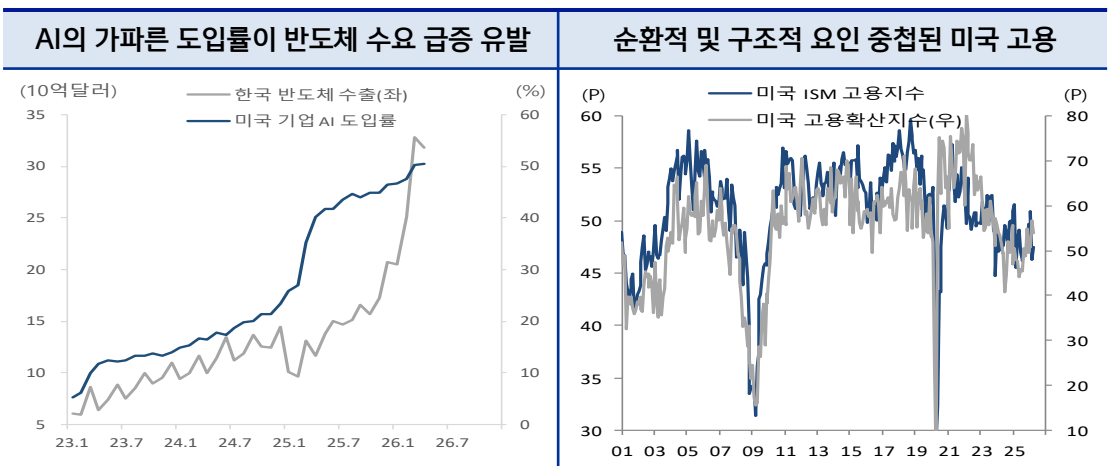
설사 중동 긴장감 완화되다 해도 연준과 더불어 중간선거라는 정치-정책 이벤트 대기. 중동전쟁의 대가료 공화당의 양당 승리 쉽지 않을 듯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5월 한국 수출도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대규모 무역흑자 시현할 듯. 가파른 SI 도입률과 경쟁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 반도체 수요도 단기에 급증

미국 물가 상승세 확인한 이후 고용 지표 발표도 연준의 정책에 영향. 만일 고용 충격 우려만큼 크지 않다면 물가에 보다 우선 순위 둘 가능성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 간 보고 있는 트럼프, 발톱 세운 한은

##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6-01-2026 9:00	SK	수출 YoY	May	53.00%	48.00%	92
6-01-2026 9:30	SK	S&P 글로벌 한국 PMI 제조업	May	--	53.6	90
6-01-2026 10:00	AU	멜버른 연구소 인플레이션 전월비	May	--	0.60%	81
6-01-2026 18:00	EC	실업률	Apr	--	6.20%	69
6-01-2026 23:00	US	ISM 제조업지수	May	53.2	52.7	95
6-02-2026 8:00	SK	CPI (전년대비)	May	2.90%	2.60%	95
6-02-2026 18:00	EC	CPI (전년대비)	May P	3.20%	3.00%	95
6-03-2026 10:30	AU	GDP SA (전기대비)	1Q	--	0.80%	93
6-03-2026 10:45	CH	레이팅독 중국 종합 PMI	May	--	53.1	71
6-03-2026 21:15	US	ADP취업자 변동	May	110k	109k	93
6-03-2026 23:00	US	ISM 서비스 지수	May	53.8	53.6	83
6-03-2026 23:00	US	제조업수주	Apr	--	1.50%	86
6-04-2026 10:30	AU	무역수지	Apr	--	-\$1841m	84
6-05-2026 8:00	SK	BoP 경상수지	Apr	--	\$37327.1m	74
6-05-2026 21:30	US	실업률	May	4.30%	4.30%	89
6-05-2026 21:30	US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May	95k	115k	99
6-05-2026 21:30	CA	실업률	May	6.90%	6.90%	92
6/07/2026	CH	외환보유액	May	--	\$3410.55b	69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95.5	221.1
고가	1,510.7	222.8
저가	1,494.9	221.1
종가 <sup>1)</sup>	1,507.9	222.7
전일비	5.1	1.2
평균환율	1,503.2	221.9
NDF(1M)	1,506.6	
거래량	244(억불)	293(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503.95	4.50
JPY/KRW	944.52	6.44
EUR/KRW	1,756.04	11.65
GBP/KRW	2,024.35	16.66
AUD/KRW	1,080.81	11.04
CAD/KRW	1,090.64	7.01
USD/JPY	159.27	0.03
EUR/USD	1.1659	0.0008

###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sup>2)</sup>	전일비
1Y	3.433	0.007	2.905	0.07
2Y	3.763	-0.014	3.190	0.04
3Y	3.859	-0.038	3.295	0.02
4Y	3.892	-0.059	3.340	-0.01
5Y	3.907	-0.085	3.370	-0.03
7Y	3.933	-0.095	3.365	-0.03
10Y	3.959	-0.100	3.225	-0.03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86	+0.01
통안 1년	2.18	-0.01
통안 2년	3.65	-0.00
국고채 3년	3.72	-0.04
국고채 5년	3.92	-0.08
국고채 10년	4.07	-0.08
국고채선물(3년)	103.38	+0.05

###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05	20.00	2.73%
3M	-345	55.00	2.73%
6M	-700	100.00	2.74%
1Y	-1,350	140.00	2.86%

###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sup>3)</sup>	전일비
1Y	3.77	-0.016	3.82	-0.016
2Y	4.00	-0.029	3.86	-0.026
3Y	4.05	-0.034	3.85	-0.031
5Y	4.14	-0.037	3.87	-0.038
10Y	4.44	-0.047	4.03	-0.044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8,476.15	+290.86	+3.55%
미국 DOW	51,032.46	+363.49	+0.72%
중국 상해종합	4,068.57	-30.07	-0.73%
일본 NIKKEI 225	66,329.50	+1,636.38	+2.53%
영국 FTSE 100	10,409.28	-16.68	-0.16%

###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87.36	-1.54
금 (선물)	4,560.50	+61.20
3M TERM SOFR	3.66	-0.00
3M EURIBOR	2.27	+0.04
KOR 5Y CDS	22.24	+0.12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